

수시 접수 이후 수험생 합격 전략

우선선발, 수능 최저기준 통과가 열쇠

논술 전형, 지원 대학 기출문제 익혀야
적성검사 전형, 빠른 문제 해결력 중요

2011학년도 주요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가 마감됐지만 모든 대학의 수시 전형이 끝난 것은 아니다. 2차, 3차 원서 접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에 전념하는 수험생이라 할지라도 수능최저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했다면 수능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매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되는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특히 수능 이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 수시1차는 학습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 원서접수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주한다.

오는 10월 초부터 말까지 한달여 논술고사를 치른다.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논술과 수능을 병행해 준비하는 탓에 시간이 촉박해 실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위권 대학은 논술성적만으로 일정 비율을 우선 선발하는데, 자격기준이 매우 높다. 수능을 소홀히 준비해 일반선발보다는 우선선발을 통해 합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논술 전형=지원한 대학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내려받아 유형을 익히고,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야 한다. 단,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전형에 지원했다면 수능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적성검사=가톨릭대·경원대·광운대·세종대·한양대(에리카) 등 적성검사 실시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등급이 4등급 정도다. 모의고사 성적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성검사 전형에 지원한 학생도 수능 준비를 잘해야 한다. 다만, 적성검사 실시 대학들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적성검사를 준비하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는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출제유형 파악과 빠른 문제 해결력이 필수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모의 적성검사 문제나 문제집으로 유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입학사정관=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서 어떤 제출서류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포트폴리오 등 활동 기록보고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추천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선생님 등 추천하는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최적의 추천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수시 지원 후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준비를 게을리하고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불투명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정시까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60여 일 동안 막바지 수능 학습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수시 1차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10월 한 달여 동안 논술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논술과 수능시험 준비 시간을 잘 안배해야 한다. 지난 9월 초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대령고교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순천대 국제정보화교육관 신축

지상 8층 규모 140억원 투입 2012년 완공

순천대(총장 임상규)에 연건평 1만㎡ 규모의 8층 건물로 국제정보화교육관이 신축된다.

순천대의 현재 대학본부 옆에 신축되는 국제정보화교육관은 전산실을 포함한 정보화교육 시설인 정보전산원과 재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어

교육을 담당할 국제교류어학원 및 대학본부 그리고, 지역특성과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성과 시설에는 문화관광과 실버교육시설·제철연구소·우주항공 연구시설·나노 고분자 시설이 신축되어 광양만권 중심대학으로서 광양만권의 제철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북아 물류 중심지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비롯, 천혜의 기계·우주 항공산업 발전과 순천시의 국제화 교육도시 조성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여고 추석 맞아 복지시설 봉사활동

동아여고 120명의 학생들은 시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최근 명절맞이 노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과기원 '中企 혁신역량 강화' 나섰다

내달 7일부터 8주간 '오픈 이노베이션' 교육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선우중호)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GIST는 과학기술응용연구소 주관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주 1회 총 8주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GIST의 기술을 실용화해 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해온 과학기술응용연구소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재단과 협력해 이번 교육을 준비해 왔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이 필요한데, 이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와 협력 및 기술도입 등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능력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방형 혁신이란 기업이 연구·개발·상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개방해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혁신 비용을 줄

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기술혁신의 방법론이다. 국내 최초 중소기업 맞춤형 개방형 혁신 교육프로그램인 이번 교육은 크게 개방 혁신의 개념,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관리, 중소기업의 협업 및 기술도입 성공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R&D특허센터, 산업연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GTI 등 관련기관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가 전문강사로 참여하는 등 수준 높은 강의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산업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치 저장기간 4개월로 늘린다
장해준 조선대교수 발효조절 연구
김치, 젓갈류 등 전통 농산 가공식품의 첨단과학화 및 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해준 교수(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가 현재 '28일'에 불과한 김치의 저장성을 '4개월'로 늘리는 연구를 시작한다.

樹木 백과도감
456종 총 망라
전남대 교수들 발간
전남대 교수들이 새로운 수목 백과도감을 내놓았다.

동신대 통합임상치료센터 개설
지역사회 언어·놀이·작업재활 치료 서비스

언어장애, 심리장애, 운동 감각 기능저하 등 각종 장애를 통합적으로 진단평가하고 중재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동신대학교에 들어섰다.

센터 개소에 앞서 동신대는 나주시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서비스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의 복지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빅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건례, 회합, 교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아남점, 강남점
1관 시라노-연애조작단(12세)
2관 그랑프리(12세)
3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4관 퀴즈왕(15세)
5관 캣츠독스2(전제)/무적자(15세)
6관 슈퍼베드(전제)/레지던트미블4(18세)
7관 해결사(15세)
8관 슈퍼베드(전제)/레지던트미블4(18세)
9관 무적자(15세)
10관 해결사(15세)